



일찍 찾아온 춘백
춘백으로 알려진 강진 백련사 동백림이 최근 따뜻한 날씨로 일찍 꽃망울을 터트렸다. 1962년 천연기념물 제151호로 지정된 백련사 동백나무 숲은 1.3ha 면적에 1500여 그루의 동백나무가 군락을 이루며 자생하고 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kwangju.co.kr

강진읍시장 24시간 화재감지기 설치 군, 점포·광장·주차장 등 34곳

강진군은 강진읍시장 화재감지기 설치사업을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
전통시장 상인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전통시장 방문객의 안전 확보를 위해 국비 포함 총 42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시장 내 연기, 열, 불꽃 등 3가지 화재 원인을 감지하는 화재감지기 34개를 설치했다. 개별 점포뿐만 아니라 화재 취약지점인 광장·주차장 등 공용 구간도 화재 감지가 가능해 감지정밀도를 더욱 높였다.
강진군은 앞서 지난해 12월 3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전기, 소방, 가스 분야 외부 전문가와 함께 화재 예방 전수 조사를 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kwangju.co.kr

장성군민 92.9% “엘로우시티 가치 재발견”

장성군, 2020 사회조사 결과 발표...경제 활성화 효과 프로젝트 이후 장성호 수변길·황룡강 등 명소 탐바꿈

장성군이 추진 중인 ‘엘로우시티 프로젝트’에 대한 지역민 인지도 조사 결과 주민 10명 중 9명은 사업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개하고 싶은 관광지를 묻는 질문에는 장성호 수변길과 출렁다리가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27일 장성군에 따르면 ‘2020년 장성군 사회조사’ 결과, 장성군민의 92.9%가 엘로우시티 프로젝트에 대해 알고 있었고 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효과로는 ‘관광객 유입·경제 효과’(52.2%)와 ‘자연친화적 경관 조성’(30.8%)을 가장 많이 꼽았다.
‘엘로우시티’는 황룡강에서부터 시작된 장성 고유의 도시 발전 프로젝트다.
특색 없는 농촌도시를 세련된 노란색 색채 도시로 탈바꿈시켰으며, 버려진 땅의 가치를 재발견해 명품 관광지로 재탄생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장성호 수변길과 황룡강이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들 수 있다. 불과 수 년 전만 해도 수풀만 가득한 곳이었지만 지금은 장성을 대표하는 관광 명소로 손꼽힌다.
장성군민들의 생각도 다르지 않았다. 가장 소개하고 싶은 관광지를 묻는 질문에 장성호 수변길·출렁다리(25.6%)와 황룡강(21%)이 나란히 1·2위를 차지했다.
군정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복지 분야(48.9%)’라고 답한 군민이 가장 많았다.
지역민으로서의 소속감과 자부심을 묻는 항목에서는 군민 54%가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이는 전남 평균(48%)을 크게 웃도는 수치지만 20~30대의 경우, 다른 연령층에 비해 소속감과 자부심이 비교적 낮은(35~38%) 것으로 나타났다.
장성군은 짧은 층의 애항심을 고취시킬 다양한 정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이번 사회조사 결과를 통해 엘로우시티 프로젝트에 대한 5만 군민의



짜릿한 스릴을 느낄 수 있는 장성호 ‘엘로우 출렁다리’. 장성의 ‘핫플레이스’로 손꼽힌다.

공감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엘로우시티는 새로운 장성을 열어가는 든든한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0년 장성군 사회조사 결과’는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지난해 8월23일부터 9월4일

까지 장성 지역 828가구를 표본으로 조사해 분석했다.
조사 결과는 향후 주요 정책 수립 과정에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3년 뒤 적금 두 배로 돌려준다

함평군 ‘청년 희망디딤돌’ 모집...월 10만원씩 적립

함평군은 다음달 1일부터 19일까지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가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이 3년 동안 매월 10만원을 적립하면 군이 추가로 1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3년 만기 시 총 적립금 720만원과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일종의 적금 프로그램이다. 저소득 근로청년의 안정적인 미래 준비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전남도와 각 시·군이 지난 2017년에 처음 도입했다.
함평군은 올해 총 23명의 신청자를 모집한다. 대상은 함평군에 주민등록주소를 둔 만 18~39세 청년으로 최근 180일 이내 90일 이상의

근로경력과 본인 근로소득 2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청년이다.
다만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등에서 추진하는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 참여자 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은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함평군은 신청자격 요건 등을 심사해 적격 대상자 중 가구소득 인정액이 낮은 순으로 최종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함평=황운학 기자 hwang@



강진 아열대과수연구회와 강진군농업기술센터가 말레이시아에 탐진향의 첫 수출길을 열었다. <강진군 제공>

강진 탐진향, 말레이시아 첫 수출

강진 특산물 탐진향이 첫 말레이시아 수출 길에 올랐다.
강진군은 지난 26일 큰 감귤인 레드향 품종의 ‘탐진향’ 100상자(3kg)를 말레이시아에 첫 수출했다고 27일 밝혔다.
탐진향은 강진지역에서 생산하는 만감류의 자체 브랜드로 감귤과 모양이 비슷하지만 크기가 더 크고 색이 붉다. 당도가 높고 비타민이 풍부해 피로 회복, 신진대사 촉진, 동맥경화 예방, 콜레스테롤 수치 저하, 항산화 등의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진군에서는 아열대과수연구회를 조직해 9농가 2.5ha에서 탐진향을 재배 중이다. 이번 수출은 연구회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

여로 성사된 것으로 시범적으로 이뤄져 물량은 많지 않다. 앞으로 현지 소비자 반응에 따라 수출량을 지속적으로 늘려갈 예정이다.
강진군은 비대면 온라인 판매 등 해외시장 마케팅에 주력해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 수출 판로를 넓힐 계획이다.
강진군은 탐진향 외에 파프리카 1000t, 딸기 10t, 작두콩차, 표고버섯스낵 등을 일본, 중국, 미국, 동남아 등에 수출하고 있다.
이승욱 강진군수는 “코로나19 사태와 한파 등의 재해도 농산물 생산 및 수출에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아열대과수연구회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수출길을 열 수 있었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kwangju.co.kr

코로나 확산에... 화순군, 청사 방문 자제 요청

사평면사무소 누적 확진 10명

화순군이 “균형 방문을 자제해 달라”고 호소했다. 사평면사무소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긴급 처방에 나선 것이다.
27일 화순군에 따르면 전남 사평면사무소 관련 339명에 대한 진단검사 결과 코로나19 확진자가 6명 추가 발생했다. 이로써 사평면사

무소 관련 누적 확진자는 공무원 5명을 포함해 총 10명으로 늘어났다.
화순군은 새로 확진된 초등생이 다닌 학원 2곳을 긴급 방역소독하고 강사·원생 등 90명에 대해 진단검사를 진행 중이다.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자 화순군은 민원인들의 균형 방문 자제를 호소하는 등 긴급 처방에 나섰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전국100개 인증업체선정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특수가발 별매 (윈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기술. 1만명 이상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사
등급제품 130만원
59만원~

광주 남구 주월동 1199-12 라인가든아파트 상가 2층(대광여고 옆)
062.673.5858 (모발모발)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동구 대인동 183-2번지 (한미쇼핑사거리)